



Things To Remember

-N. T. Wright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히 10:19-20]

1.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삶을 버리셨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벧전 3:18)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궁극적인 희생을 주셨습니다. 그가 질고를 겪음으로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2. 예수님 눈에 우리는 언제나 완벽하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 139:14)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눈 색깔, 코 모양 및 미소를 골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많은 걸작을 창조 하셨으며 우리도 그중 하나입니다.

3. 회개하면 그는 용서하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일 1:9)

우리의 회개는 용서라는 큰 선물을 안겨줍니다. 죄가 얼마나 큰든 작든 상관없이 예수께서는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판단하지 않으며, 우리 각자의 아름다움만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고백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4. 찬양하라, Always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벧전 4:11)

주님께서는 고난의 때에 우리가 당신에게 달려 가기를 원하실뿐만 아니라, 기쁨의 때에도 주를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삶의 모든 최고점과 최저점에서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5.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엡 5:1)

예수님은 우리 삶의 본이시며 끝까지 닮아가야 할 대상이십니다.

6. 그는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수 1:9)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고 잊어도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7.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을 행하셨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행 17:2-3)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일들을 자주 망각합니다. 부활절은 계란과 토끼 그 이상입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을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분이 한 일을 기억할 때입니다. 이번 부활절, 우리는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한번 명심하도록 요청합니다.

<https://www.theodysseyonline.com/7-things-to-remember-this-easter>